

이재명 후보, 여권 대통합 나선다

민주 탈당자 복당 추진
열린민주당과 합당도
이낙연 비전위원장 맡아
대선 승리 '터닝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에 대선 승리를 위한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탈당자에 대한 복당을 추진하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여권 대통합'을 시도하면서 '민주당 원팀'의 초석도 굳건히 다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당자의 입당 과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과 기존 당원들의 반대도 예상되는 등 불협화음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국가비전과 통합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오찬에 참석한 윤영찬·오영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마주친 이후 51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이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때로는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인근 서울도시건축관으로 이동,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지금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

여해 민주당의 4기 민주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길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전위는 ▲코로나19 극복 방안 ▲양극화 완화

및 복지국가 구현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 ▲국민대통합 등을 주요 여젠다로 삼아 차기 정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선 등 위원회 구성은 내주 초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기존 탈당자에 대한 복당도 추진한다. 과거 전 국민의당 창당 등을 거치면서 무더기 탈당이 이뤄진 만큼, 이들이 민주당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대선에서 힘을 모으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탈당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 복당시켜준다는 것이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후보군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탈당자가 복당을 하더라도 경선과정에서 감점을 주기로 한 불이익까지 사라지면 "그동안 당을 지킨 이유가 없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기존 당원들이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른바 다음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열린민주당 내부의 '합당 승인'이 먼저 이뤄지면 양당이 연내에 정치적 통합 선언을 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내건 합당 조건들 가운데 당내 우려가 있는 일부 조건들에 대해서는 양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에서 점진적 찾겠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

FA 최대어 나성범
고향팀 KIA 입단
6년에 150억 초대형 계약



FA 계약을 끝낸 나성범이 KIA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BO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 나성범(32)이 고향팀에서 뛰는 KIA 타이거즈(32)가 23일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외야수 나성범과 FA 계약을 체결했다.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힌 나성범은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 60억원, 연봉 60억원, 옵션 30억원 등 총 150억원에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 금액은 2017년 미국에서 복귀한 이대호(39)가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할 때 받은 역대 FA 최대 규모액 150억원(4년)과 같다.

광주 전주고 출신인 나성범은 연세대를 거쳐 2012년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었다. 연세대 시절 좌완 피어어볼러로도 기대를 모았던 나성범은 김경문 전 감독의 권유로 타자로 전환, 9시즌 동안 타율 0.312, 212홈런, 830타점, 814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타율 0.281에 머물렀지만 전체 144게임에 출전해 홈런 33개를 기록하며 SSG 최정(35개)과 '출런왕' 경쟁을 벌였다.

KBO리그 팀홈런 최하위(66개)에 그치는 등 부실한 화력에 고전한 KIA는 '한방' 있는 광주 출신 나성범을 영입하면서 장타력을 보강하고 스타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X-마스·연말연시 '오미크론' 초비상

전남, 오미크론 의심 8명 추가...170명 자가격리
광주, 공공기관·요양병원 등 신규 확진 43명 추가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발 확진자가 거세지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

시 시즌이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미 지역 사회 곳곳에 무중상 등 숨은 감염자들이 일부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임·외출 자제, 실내의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공공기관

관련해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동구 공공기관 관련 확진자는 30명까지 늘었으며, 이 중 9명은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접촉자 14명도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종사자, 환자 등이 집단 감염된 북구 요양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는 33명이다. 나머지는 타시도 확진자 관련 5명, 기 확진자 관련 18명, 유증상 검사자 10명 등이다. 사망자도 나왔다. 22일 정오계 조선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50대(12월 20일 확진)가 광주 37번째 사망자가 됐다.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 8명이 추가돼 170명이 격리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는 모두 '합평 오

미크론' 으로부터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2명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됐고 2명은 분석 불가 8명은 분석 중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목욕탕에서 취식금지 조항을 어기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고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했다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꼭 쓰고, 모임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 사건·사고 - 전두환·노태우 사망 ▶6면

복스 - '세르파, 히말라야 등반기' ▶14·15면

페퍼스 '분위기 메이커' 센터 최가은 ▶18면

광주광역시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호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발급